

글. 이영희_ Lee, Young-hee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나를 움직인 시골도서관

Rural library that moved me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건축담당 기자로 2년 여간 일하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 멋들어진 지어진 랜드마크, 사는 이의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한 작지만 알찬 집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며 이런 문장을 수없이 쓴 것 같다. '건축이 공동체를 바꾼다', 혹은 '좋은 집에 사니 인생이 달라졌어요'같은. 대부분의 건축기사에 의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정작 진심으로 그리 느낀 적이 있었던가. 당시 고시원보다 조금 큰 평수의 복층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나는, 건축사와 건축주가 머리를 맞대고 지은 예쁜 집을 취재하고 돌아온 날이면 조금쯤 우울해졌다. 하지만 곧 정신승리에 돌입한다. 집이 인간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어떤 공간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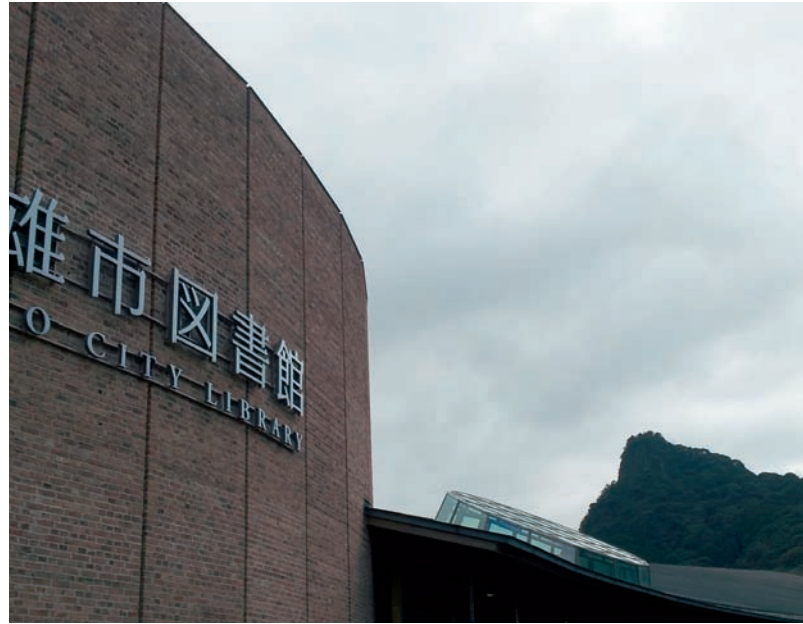
건축은 잘 모르지만 예술품 같은 건축물을 감상하는 걸 좋아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도쿄 아오야마 명품 거리의 프라다 빌딩 같은. 하지만 정작 건축이 가진 힘을 제대로 실감한 것은 일본 시골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때는 지난 봄, 뒤늦은 겨울휴가로 규슈 사가현에 있는 우레시노 온천을 찾았다. 우레시노로 가려면 다케오라는 소도시를 거쳐야 하는데, 버스시간이 잘 맞지 않아 서너 시간을 때워야 했다. 다케오는 지나치게 조용한 마을이었다. 검색을 해보니 인구가 5만이라던데, 다들 어디 있는지 길거리에서 행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뭐야, 재미없는 동네군. 투덜거리며 걷고 있다가 발견했다. 저 멀리에서 도시녀를 부르는 희망의 메시지, '스타벅스'의 표지판을. 진한 커피가 갈급해 서둘러 걷는데, 낮은 2층짜리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었다.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책을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



대중문화, 건축, 문화재 담당을 거쳐 현재는 출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 담당기자 시절에 신문 지면에 '젊은 건축사들과 함께 하는 유쾌한 집짓기' 시리즈를 연재했다. 지은 책으로 에세이집 '어쩌다 어른'이 있다.





들이 보였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학생도 있었다. 주차장엔 차가 가득했다. 오, 여긴 뭐지? 건물 앞에 '다케오시립도서관'이라 적혀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간질이는 커피향. 입구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있고, 그 옆으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이 주르륵 놓여 있다. 이 곳 1층은 일본 음반 렌탈업체인 쓰타야(TSUTAYA)가 운영하는 책방 겸 CD&DVD 대여점이다. 사람들은 서점에 진열된 책을 가져와 테이블에 쌓아놓고 읽는다. "도서관은 어디냐"고 직원에게 물으니 "여기가 도서관"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2층으로 올라가니 도서관 장서가 빼곡하게 꽂혀 있고, 드문드문 놓인 테이블에서 고등학생들이 책을 펼쳐 놓은 채 수다를 떨고 있다. 서점과 도서관은 경계가 없고, 서점 계산대에서 도서관 책의 대여와 반납도 한다. 도서관이자 서점이고, 열람실이면서 카페다.

이런 도서관이 가능했던 것은 시의 과감한 결정 덕분이었다고 한

다. 2013년부터 민간업체 쓰타야에 도서관의 운영을 맡겼고, 쓰타야는 특유의 인테리어 감각을 발휘해 공간을 확 바꿨다. 답답한 도서관 느낌은 사라지고, 높은 천장에 감각적인 가구로 꾸며진 공간이 탄생했다. 오후 9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낮에는 동네 주부나 노인들이, 저녁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들르는 공간이 됐다. 2014년 도서관 이용자가 누적 10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 중 60만 명이 다케오 시민이었다. 인구가 5만이니 어림 잡아도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곳에 들렀다는 이야기. 이 동네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었다.

이 곳을 찾았을 때 느낀 위안과 감동을 공간미학 등으로 풀어낼 감량이 못 된다. 그저 커피 한 잔 마시려던 계획을 변경해 오후 내내 도서관 안팎을 서성이다 어두워져서야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던 이야기만 해 둔다. 어떤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삶의 패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 곳에서 실감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방문해, 이 공간의 비밀을 필자에게 알려주시길.

